

# [성주간] 주님수난 성지주일 화 답 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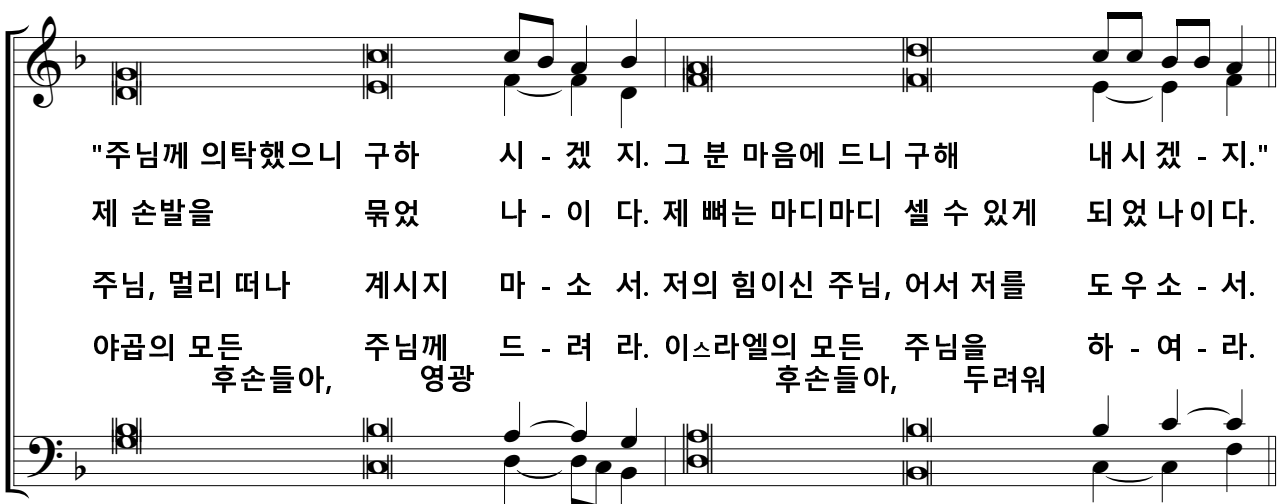
시편 22(21), 8- 9. 17- 18. 19- 20. 23- 24



(후렴) 하 느 님, 저 의 하 느 님, 어 찌 하 여 저 를 버 리 셧 나 이 까?



1. 보는 사람마다 저를      비 웃 어 대 고     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내젓나 이 다.  
2. 개들이 저를      에 워 싸 - 고      악당의 무리가      돌      러 싸  
3.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     가 - 지 - 고      제 속옷 놓고는      제비를 뽑나 이 다.  
4.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      주님을 경외      주님을 찬양하 여 라.  
    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      하는 사람들아,  
    데에서 당신을 찬양 하 오 리 - 다.



"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      시 - 겠 지. 그 분 마음에 드니 구해      내 시 겠 - 지."  
제 손발을      묶었      나 - 이 다.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     되었 나 이 다.  
주님, 멀리 떠나      계시지      마 - 소 서. 저의 힘이신 주님, 어서 저를      도 우 소 - 서.  
야곱의 모든      주님께      드 - 려 라. 이스라엘의 모든      주님을      하 - 여 - 라.  
    후손들아,      영광      후손들아,      두려워